

# SKC, POP 1만7000톤 체제 돌입

자체 설계공정에 100억원 투입 ... 2004년 중국시장 점유율 35% 목표

SKC가 1만톤 규모의 Polymer Polyol 제2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C는 1995년 독자적인 공정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3번째로 7000톤 규모의 연속식 POP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다시 100억원을 투자해 1만톤 규모의 고품질·고기능 POP 제2공장을 준공했다고 12월9일 밝혔다.

한해 생산능력 1만톤의 POP 제2공장은 SKC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공정을 자체 설계했으며, 전체 생산능력이 1만7000톤으로 확대돼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과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KC는 PO(Propylene Oxide) 및 PO 유도체 제품에서 한해 37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려 국내 PO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 SKC의 POP 제2공장 전경



제2 POP 공장 준공으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했으며, 한해 2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SKC의 POP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3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제품으로, 중국의 경제와 자동차 공업의 발전추세에 따른 고급 PU Foam 수요 급증으로 2004년에는 POP 시장점유율을 3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POP는 자동차의 쿠션, 침대의 매트리스 등에 안락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폴리우

레탄 폼(Foam)의 핵심 원료인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으로, 전자제품의 포장재, 가구 및 신발, 의류 등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10>